

# 중현학·삼론종 실천적으로 재구성한 우두선에 매료

## <21> 선사(禪師)문화의 기사들(2)

이화(李華) 기사에 이어 우두선(牛頭禪)에 귀의한 수많은 기사 가운데 유명한 이는 이덕유(李德裕, 787~850) 기사이다. 그의 부친인 이길보(李吉甫, 758~814) 역시 불교에 귀의한 불자였다. 이길보 기사는 중서시랑(中書侍郎), 동평장사(同平章事) 등 고위관직을 역임했다. <불법금광론>에 따르면 “화엄종의 청량장관(淸涼澄觀) 대사가 기사를 위해 <화엄정요(華嚴正要)> 1권을 찬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사는 말년에 앞에서 언급했던 현소(玄素) 선사 제자 법흥(法興) 선사에게 귀의했다. 선사가 입적 후 선사의 비명(碑銘)을 지었다. 이러한 부친의 영향으로 이덕유 기사 역시 철저하게 우두선에 귀의했다.

이덕유 기사는 자(字)가 문요(文饒)로서 절서관찰사(浙西觀察使), 서전절도사(西川節度使)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특히 당(唐) 무종(武宗)이 일으킨 화창법란(會昌法亂, 841~847)시기에 승상(丞相)을 지냈다. <구당서(舊唐書)> 권147에 실린 전기에 따르면, 기사는 일찍이 조정에 국가에서 허락받지 않은 사도(度)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주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태화(太和) 3년(829) 검교예부상서(檢校禮部尚

훈을 받고 성장한 기사의 불교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짐작된다. 또한 천태학과 화엄학 등에 능통한 부친이 만년에 우두선에 매료했던 영향으로 기사에게는 어떤 종파보다도 우두선에 관심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사가 관직 때문에 상당 기간 강남에 머물렀던 것도 우두선에 관심을 가질 계기를 제공했다.

이쯤에서 강남불교 특징에 대해 잠시 고찰해보는 것도 전체 중국불교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본래 중국문화는 장안(지금의西安)과 낙양(洛陽)의 관중(關中)을 중심으로 하는 황하(黃河) 문화와, 남경(南京) 중심의 장강(長江) 문화로 크게 나뉜다. 한대(漢代)와 위(魏)·서진(西晉)시기까지는 주로 관중지역이 문화중심지 역할을 했다. 서진의 실정으로 북방지역이 소수민족을 점령하면서 대다수 지식인들이 남방으로 남하해 남경을 중심으로 동진(東晉)을 세웠다. 이를 ‘동진16국’ 시대라고 한다. 후에 다시 남방과 북방이 여러 황조로 명멸하는 시기를 ‘남북조(南北朝)’ 시대라고 한다.

## 이덕유 양관 배도 진소유 최군 기사 등 우두선에 귀의 강남불교 반야학 ‘주역’ ‘노자’ ‘장자’ 현학과 결합

書) 직위에 있으면서 20만전(錢)을 보시해 남경(南京)에 법용(法融) 선사의 새로운 탑을 건립했고, 류우석(劉禹錫) 기사에게 <탑기(塔記)> 찬술을 청하기도 했다.

류우석은 이 <탑기>에서 이덕유 기사를 평해 “이치를 숭상하고, 옛 것을 믿으며, 유가(儒家)와 현학(玄學)을 함께 닦았다. 승려들이 부처를 팔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명명해 금지시켰지만, 참다운 실상(實相)에는 깊게 통달했다”라고 적었다. 여기서 기사의 불교에 대한 모순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사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주청해 집행했지만, 그것은 바로 “부처를 팔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금하려는 의도였다. 류우석의 “참다운 실상(實相)에 깊게 통달했다”는 평가는 기사가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며, “유가와 현학을 함께 닦았다”는 평가는 기사가 심취하고 있던 불교의 경향을 짐작하게 한다.

“유가와 현학을 함께 닦은” 기사의 안목에 걸맞는 불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미 부친에게 불교적

남북으로 분리된 정치적 상황은 중국불교 전개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남방에서는 관중으로부터 형성된 학문적 전통, 즉 현학(玄學)을 그대로 유지했다. 북방으로부터 대승교학, 특히 반야학이 전래되면서 중국 전역에는 반야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남방은 그 전통에 따라 현학과 반야학을 결합시킨 상태로 출현시켰다. 분무종(本無宗), 심무종(心無宗), 즉색종(卽色宗) 등 철저히 현학과 결합된 이른바 ‘육가칠종(六家七宗)’의 반야학파가 모두 강남불교에서 출현했다. 현학은 바로 <주역(周易)> <노자(老子)> <장자(莊子)>의 ‘삼현(三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었다. 때문에 현학은 필연적으로 강남불교의 반야학은 이 ‘삼현’과 결합될 수밖에 없었던 특징이 있다. 중국 반야학파인 삼론종(三論宗)에 노장(老莊) 도가(道家)적 색채가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찾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당대(唐代)에 이르러서 더욱 심화됐다. 특히 도사인 성현영(成玄英)은 삼론종 학설을 수용해 <장자>를 새롭게 해석하며 강남지역에 새롭



그림 · 김홍인

게 ‘현학’을 부흥시켰다. 성현영을 ‘중현학(重玄學)’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우두선이 중현학과 사상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도 이유다. 우두선 조사인 법용(法融) 선사의 <절관론(絶觀論)>은 대도(大道를 ‘중허유적(中虛幽寂)’으로 파악해 ‘허공을 도의 근본(虛空爲道本)’으로 세웠다. 이는 바로 현학의 ‘무로서 근본을 삼음(以無爲本)’과 그대로 일치한다. 더욱이 최종적으로 ‘성품에 맡겨 소요함(任性逍遙)’을 제창하는 것으로 두 말할 나위 없이 장자의 사상이다.

우두선은 삼론종 김장(吉藏) 대사의 ‘무정성불(無情成佛)’ 학설을 받아들였다. 나아가 장자의 ‘도는 없는 곳이 없다(道無所不瀾)’는 사상을 결합해 ‘푸

르고 푸른 대나무가 모두 법신이며, 활짝 핀 노란 꽃이 반야 아님이 없다(靑靑翠竹, 盡是法身, 郁郁黃花, 無非般若)’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다. 후대에 이러한 사상은 조사선에서 상당히 중시됐다.

무엇 때문에 우두선에 이덕유 기사 등 당시 최고 위관들이 매료됐을까? 특히 기사는 무종이 화창법란을 일으킬 때, 승상의 지위에 있으며 법란을 막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조했던 인물이다. 어쩌면 기사의 안목에는 당시 교학불교의 상황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두선은 순수불교보다 가장 현학과 결합된 불교, 즉 가장 중국화된 ‘선(禪)’이었기 때문에 유가와 현학을 함께 닦은 기사의 마음에 결합됐던 것은 아니었을까?

‘화창법란’이 결국 교학의 쇠퇴를 가져왔고, 선종이 중국천하를 석권하는 계기가 됐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우두선에 귀의한 고위 관료 가운데 하나는 양관(楊絳) 기사이다. 기사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나, 모친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청렴함으로 유명하다. 기사의 청렴함은 황제까지도 인정해 이부상서(吏部尙書), 중서령(中書令) 등의 고관을 지내며, 역대 청렴함의 귀감으로 이름이 높다. <구당서(舊唐書)>에 실린 양관 기사 전기에 따르면, 기사의 성향은 ‘현리(玄理)를 극도로 숭상하고, 고요하여 욕심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사는 상당히 총명했다. 학자들이 경서의 오의(奧義)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경서를 일말하고 그 도리를 깨우쳐 대중들에게 설명했고, 불교와 도교의 양교를 모두 숭상해 뛰어난 선사들과 도사들과 도를 논함을 즐겼다고 전한다. 양관 기사는 특히 우두선의 법흥 선사와 관계가 밀접했다. 기사는 선사를 ‘방외(方外)의 고사(高士)’라고 극찬했다.

양관 이외에 우두선에 귀의한 기사들로는 배도(裴度, 765~839)와 진소유(陳少游), 최군(崔群, 772~832) 등이 있다. 배도 기사는 어사중승(御史中丞), 문하시랑(門下侍郎) 등의 고관을 역임했다. 만년에는 법흥 선사에게 귀의해 백거이(白居易), 류우석(劉禹錫) 등의 기사들과 함께 도를 논하며 어울렸다. 진소유 기사는 어려서 노장사상에 심취했으나, 도사 오군(吳筠)이 임공해 불교를 비판하는 것을 목도하고 불교에 귀의한 묘한 인연을 갖고 있다. 최군 기사는 한림학사(翰林學士), 중서시랑(中書侍郎) 등의 고관을 역임했다. 법흥 선사와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의 사법제자인 여회(如會) 선사에게 귀의했다. 아마도 여회 선사가 마조 선사에게 법을 받기 전에 법흥 선사에게 와서 법을 들었던 시기에 인연이 맺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분등록(居士分燈錄)>에 실린 최군 기사 전기에 따르면, 기사는 법흥 선사에게 “출가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사는 “출가는 바로 대장부가 할 일인데, 어찌 장상(將相, 정수와 재상이) 능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통을 쳤고, 기사는 언하에 깨달았다고 전한다.

우두선에 귀의한 이화, 이덕유, 양관, 배도, 진소유, 최군 등의 기사들을 살펴봤다. 이들 사대부(士大夫) 기사들의 특징은 모두 기본적으로 유학(儒學)을 바탕으로, 대부분 현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우두선은 사상적으로 중현학과 삼론종을 결합시켜 그를 실천적으로 재구성한 선학(禪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사대부 기사들을 깊이 매료시킨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이러한 사대부 기사들의 귀의는 강남을 중심으로 우두선이 크게 번창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이후 선종이 중국 천하에 널리 퍼지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광주시	정호승	1975년생	170	대졸	회사원	대전	원병대	1971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도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울주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	사업자	서울	유준호	1971년생	176	대졸	회사원	대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졸	회사원	서울
노해웅	1972년생	173	고졸	C E O	대전	권순수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경기도	박대현	1977년생	168	고졸	회사원	충주	김지경	1970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박범규	1966년생	182	고졸	사업자	전주시	박대진	1975년생	182	고졸	공무원	충주	김정준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문운중	1970년생	163	고졸	사업자	광주시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사	경기도	박경하	1952년생	177	대졸	무역	서울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직	구미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경	충주	전준석	1957년생	167	고졸	회사원	경기도
임태민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천안	민의식	1969년생	172	고졸	회사원	부산	양명진	195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주	오영일	1951년생	170	고졸	회사원	안양
김기업	1969년생	180	전문대	자영업	서울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이용철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도	강태욱	1975년생	169	고졸	자영업	서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	회사원	경기고양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공무원	충주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경기도	김용진	1968년생	160	대졸	자영업	인천
최명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시흥	정연중	1959년생	165	고졸	공무원	충주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충주	이강술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경기도
오상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오세준	1975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충주	심명길	1971년생	170	대졸	지영	경기도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부여	박헌득	1964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배중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대전	이연재	1974년생	169	대졸	회사원	서울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전주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경기도	김상기	197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주	배덕열	1976년생	168	대졸	회사원	경기도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졸	공무원	경기도	이중호	1976년생	163	고졸	회사원	충주	배복원	1967년생	165	고졸	자영업	경기도
이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	회사원	대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회사원	대구	오진철	1974년생	170	대졸	한약사	충주	최병덕	1968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박종우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대전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충주	장보배	1973년생	176	고졸	자영업	아산시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경기용인	최용우	1962년생	164	고졸	건설사	충성군	최성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충주	유두석	1971년생	167	고졸	회사원	서울
정화선	1960년생	175	대중대	공무원	경기이천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건설사	경기도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충주	유정환	1974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북예천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공무원	충주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사	충주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공무원	서울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인천	김재원	1966년생	170	고졸	공무원	충주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약사	충주	조경성	1945년생	171	대졸	자영업	경기도
정지영	1974년생	174	중졸	회사원	수원	서정은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공사	충주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졸	자영업	경기도	이공희	1972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	금융직	울주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견공사	경기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대전						
김종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모용우	1973년생	177	대학교	교육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졸	회사원	대전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울주	박대식	1974년생	175	대학교	회사원	충주	오귀석	1958년생	170	고졸	회사원	대전						
박중구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병익	1974년생	176	고졸	회사원	충주	이진용	1955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전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	공무원	서울	김진희	1964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안영규	1977년생	168	대졸	회사원	대전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울주	정지현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여인석	1971년생	183	대졸	회사원	대전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정일준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졸	회사원	대전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	회사원	충북옥천	박선준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충북	박홍철	1974년생	170	고졸	회사원	대전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기수원	진인덕	1965년생	157	대학교	학농	충주	임재환	1970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전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대	자영업	경기화성	연태현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대전	최우준	1971년생	167	고졸	회사원	대전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자영업	충주	김정태	1957년생	162	대졸	회사원	대전						
변희성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박정은	1972년생	168	대졸	회사원	충주	성민수	1976년생	168	대졸	회사원	대전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광주광역시	강중남	1973년생	160	고졸	회사원	충주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대	공무원	충주						
김창영	1970년생	163	대졸	회사원	충주	김대수	1973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주	정현제	1965년생	174	대졸	제과점	충주						
박연학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고양시	장정선	1967년생	175	고졸	회사원	충주	김호준	1970년생	166	고졸	회사원	대전						
홍진석	1968년생	167	대졸	시설관리	부천시	안상기	1966년생	185	고졸	공무원	충주	이기중	1971년생	175	대학교	회사원	대전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부산	정우철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충주	최성욱	1973년생	190	대졸	회사원	대전						
배병진	1967년생	169	대졸	회사원	서울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경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대전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여러분께  
인연찾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호

현대불교신문 독자